‘팔만대장경 인경’ 혜견 스님 면면을 살피다

2024년 통도사 하계학술대회
용악 혜견 생애 및 법맥 살펴
재조대장경 인경 의의 고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8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용악 혜견의 생애와 1899년 재조대장경 인경 사업의 의의’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8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용악 혜견의 생애와 1899년 재조대장경 인경 사업의 의의’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용악 혜견(龍岳 慧堅, 1830~1908)의 원력으로 1899년(광무 3)에 이루어진 고려재조대장경(이하 팔만대장경) 인경 봉안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통도사는 “용악 혜견 스님은 팔만대장경 인경 봉안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1899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4부는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에 봉안했다.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 인경본은 세월이 지나면서 유실되어 현존하는 것은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것이 유일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힘든 고난의 역사 속에 용악 혜견 스님은 팔만대장경 인경 사업을 이루셨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업적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개회 법문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고려대장경 인경(印經)의 역사와 그 특징(박용진 국민대 교수) △용악 혜견(1830-1908)의 생애·법맥과 ‘용악당사고집’의 편찬 과정 검토(김방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용악 혜견(1830-1908) 선사의 시 세계(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로 이어졌으며, 종합토론에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수석연구위원, 박해당 성균관대 초빙교수, 박해진 작가가 참여했다.

김방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은 ‘용악 혜견(1830-1908)의 생애·법맥과 ‘용악당사고집’의 편찬 과정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용악 혜견 스님이 1896년 67세 나이에 팔만대장경 인경을 발원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석왕사도총섭으로 태조 이성계에 의해 석왕사에 대장경이 봉안됐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석왕사 대장전은 태조 3년(1394) 성호 주지가 창건한 이래 여러 차례 중창됐다. 인조 19년(1641년)에는 전소되어 그때 보관 중이던 대장경도 소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은 다시 중수 되었고 고종 15년(1878년)에 다섯 번째 중창되면서 대장전에서 해장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용악 혜견은 중창 4년 전 1874년에 주지로 지냈다. 그는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원력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용악 혜견 스님은 함경도 함산에서 태어나 1842년 석왕사 신암(信庵)에게 출가했다. 석왕사 주지와 총섭을 거쳤으며, 1896년 67세의 나이로 도총섭의 직위를 가지고 팔만대장경 인경 사업을 위해 통도사로 내려왔다. 이후 이 사업에 헌신하며 전국의 불교계에서 자금을 모으고 기도와 정진을 통해 팔만대장경 인경을 이뤄냈다.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회향

8월 21일 설법전 및 경내 일원
5월 25일부터 90일 동안 진행


금정총림 범어사는 8월 21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8월 21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을 맞아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전한다.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 기도와 함께 법문을 통해 백중의 참된 의미와 효 실천의 공덕을 더불어 안내하고 있다.

범어사는 지난 5월 25일 백중 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90일간 기도를 이어왔으며 매주 토요일에 법석을 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범어사 율주 수불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등 14명의 선지식 초청법석이 진행됐다. 회향 법회에서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가 법문했다.

이 자리에는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정오 스님과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특히 이날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에도 수많은 대중이 참여해 자리를 지키며 기도에 정성을 더했다.

정여 대종사는 법어에서 “그동안 성불의 고귀한 씨앗을 심어주신 법사 스님들의 공덕과 원만 회향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신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모든 소임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세상에 은혜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 감로법문을 영가들이 듣고 깨달아 극락으로 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여러 불자님들도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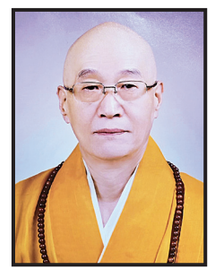
이어 “지장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이웃과 유정무정 모든 생명과 나누는 것이 보살이 되는 길이고 바른 회향이다.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해야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효가 만가지 선행의 근본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참석한 스님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영가가 미련없이 극락왕생하도록 불자들의 마음도 가볍게 보내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장 기도에 동참해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담 대종사 원적

8월 14일 세납 76세 법랍 49세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당(法敏堂) 원담(原潭) 대종사〈사진〉가 8월 14일 한국불교원효종 부산 수덕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납 76세, 법랍 49세.

장례 절차는 스님의 평소 유지와 뜻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다비식은 8월 21일 영축총림 통도사 다비장에서 엄수됐다.

법민 스님은 1948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82년 불우청소년선도자비회 초대회장을 맡으며 나눔과 인재불사를 발원했다. 1985년 능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부산 수덕사 주지로 활동했다. 1988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학당, 지역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매년 지역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봉행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자애원’을 설립해 불교 복지사업에도 매진했다.

법민 스님은 2012년에 부산불교승가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생전 저서로 ‘불타의 진리’ ‘실천불교생활’ ‘진수’ 등 다수가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소외이웃 위한 백미 1000kg 후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백중기도 회향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백미 1000kg를 전달했다.

미소원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8일 미소원 법당에서에서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후원된 백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경로식당과 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유정 이사장은 “백중기도 끝마침을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으로 마무리해 기쁘다”며 “불자들의 공덕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983년 자비원 봉사회로 시작해 2011년부터 사단법인 미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문현노인복지관 ‘여름보양식 나눔행사’

8월 14일 문현노인복지관서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문현노인복지관(관장 변정희)이 무더운 여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보양식을 마련했다.

문현노인복지관은 8월 14일 복지관내에서 ‘여름보양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나눔 행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과 복지관 이용 대상 어르신을 위해 준비했으며 녹두한방삼계탕과 나박물김치 150인분을 전달했다.

변정희 문현노인복지관 관장은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말복을 맞이하여 준비한 여름 보양식을 드시고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1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9월 28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